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ducation**

변지유\*\* · 이일한\*\*\* · 이장희\*\*\*\*

《 目 次 》

I. 서론	IV. 연구방법
II. 연구배경	V. 연구결과
III. 연구모델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Abstract

<요약>

유럽에서는 이미 사회적 가치창출과 자기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기업가정신역량을 진로관점으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그리고 창업정규교과목 수강 전과 수강 후의 변수 간 영향력 변화를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정신역량은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가지나 창업의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창업교과목 수강집단의 경우,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창업의도가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간 매개효과를 가지는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개념으로 확장하여 기업가정신역량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의를 가지며,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선행요인인 기업가정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적 기업가로 거듭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일으켜 나가는 선순환이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

논문접수일 2021.11.11.

논문수정일 2021.11.30.

게재확정일 2021.12.03.

\* 본 논문은 2021년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연구되었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전담교수(제1저자, E-mail: designkoreal@naver.com)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조교수(공동저자, E-mail: lih2114@cau.ac.kr)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janghlee@koreatech.ac.kr)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주제어 : 기업가정신역량,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 교육효과, 다중집단분석  
한국창업학회지 연구분류 I : Type II-② (새로운 이론의 수입·적용, 관련성)  
한국창업학회지 연구분류 II : 창업정책, 개인수준연구

## I. 서론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가 정신은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동인으로 널리 간주되어 왔는데(Acs et al., 2009), 경제 발전의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가이고(Schumpeter, 1965), 이러한 기업가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따라서 더욱 혁신적인 기업가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Baldassarri & Saavala, 2006). 유럽연합에서는 기업가정신역량을 8가지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꼽았으며, 평생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Sanchez, 2013)를 수립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Akpoviro et al., 2021).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이나 사회발전을 견인할 뿐 아니라 고용촉진 및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이다(Dempsey, 2009; Estrin et al., 2016; 변지유 외, 2021). 또한 기업가적 태도를 촉진하는 주요 도구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Ahmad, 2013). 이러한 기업가적 활동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욕구나 동기를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기업가 정신 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주제이며, 관련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관련 되는 목표달성 의도나 특정행동에 초점을 둔다(Tornikoski & Maalaoui, 2019). 학생들의 실용적이고 경험적인 기업가정신 학습 및 창업교육은 창업의도 뿐 아니라 기업가적 능력(entrepreneurial capabilities)이나 기업가정신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e)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Hannon, 2006; Ibrahim et al., 2015; 변지유·이장희, 2020), 개인의 진로결과와 관련되는 동기에 대한 분석은 기업가정신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Carter et al., 2003; Shane et al., 2003). 진로를 개발한다는 것은 자기 주도적 삶을 개척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은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요인이다(이지연 외, 2009; 진성희·성은모, 2017). 이러한 특성은 기업가정신역량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며, 창업교육과 진로 간 관계규명에 대한 연구 활성화가 요구된다(정경희·성창수, 2016). 그럼에도 기업가정신, 역량, 그리고 진로 간 연관성을 밝히는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기업가정신역량 및 진로분야로 사회적 관심과 연구필요성에 대한 공감감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가정신역량과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와 수강 후 교육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학문적으로는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지평을 확장하여 기업가정신역량의 연구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정책적 방향성과 실무계에서는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통찰과 실행방안의 실마리를 제공

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기업가정신과 역량을 진로개념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취업에 편중되기 보다는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진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견인하고, 대학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다수 혁신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II. 연구 배경

### 2.1. 기업가정신역량 (entrepreneurship competence)

기업가정신은 미래에 대한 예측과 통찰, 도전과 혁신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 ‘나 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험을 통해 참된 가치를 창출하려는 혁신적인 마음가짐이자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다(강경균, 2017; 배해경·이우진, 2020).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은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동기부여능력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Miller, 1983; Jantunen et al, 2005; 김성환 외, 2015). 역량은 특정 상황에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된 지식, 기술 및 태도의 결합된 패턴이자(Bartram, 2005; Wesselink & Wals, 2011), 현재와 미래에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Noppel, 2018). 유사단어로 연구되고 있는 ‘기업가적 역량’은 기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Man et al., 2002) 기업가정신역량의 더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Lilleväli & Täks 2017).

기업가정신 역량은 창업 범위를 넘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적 지향성 및 사회적 기술이자, 아이디어 실현이나 창의성 및 위험 감수와 관련된 개인의 핵심능력이기도 하다(Peltonen, 2015). 또한 기업가적 실행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타인을 위한 가치창출 행동력이자 사회에 기여하는 실행력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본질적인 전 생애 경쟁력이자 존재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Bacigalupo et al., 2016; 변지유·이장희, 2020).

### 2.2. 창업의도 (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은 계획된 행동으로 자원을 확보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치 있는 기업을 창조하는 것이고(Vesper, 1990), 의도는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마음의 상태이다(Bird, 1988).

국내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와 ‘창업의도’가 혼용 또는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박중범 외, 2020)되고 있는데, 의도가 좀 더 실행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변지유 외, 2021). 창업의도는 미래지향적이고 자발적이며(Ajzen, 1991; Crant, 1996), 기업가적 행동을 수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행하려는 개인의 노력이나 마음의 상태(Bird, 1988; Liñán & Rodríguez, 2004), 새로운 벤처창출에 참여하려는 개인의 열망과 의지(Doan et al., 2011),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정의된다(변지유 외, 2021).

### 2.3. 진로준비행동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진로(경력)는 직업에 대한 평생 연속적인 사건(정경희·성창수, 2016)이자 개인이 자신의 특성,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진로활동은 적성이나 일을 하는데 동기를 제공하는 흥미와 자신의 성격에 대한 탐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활동이다(우리말샘, 2021; 세계일보, 2003.08).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며(Winner, 1992),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수행하는 행동으로 자기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 등 전반적 진로활동을 포함한다(Speas, 1963; 김계현, 1995). 또한 대학생이 자신의 미래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이며, 다양한 진로수행 및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쌓고 개발하는 행동이다(문승태·박미하, 2013). 즉,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관련 역량은 직업기초 역량임과 동시에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으로(진성희·성은모, 2017), 진로준비행동은 정보수집, 진로준비 과정상 필요한 도구보유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김봉환, 1997), 자기발견 및 진로방향 탐색을 위한 행동, 직업과 관련된 준비행동(김계현, 2001) 등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 2.4.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이란 기회인식 및 자원배분을 통해 모험적 기업을 설립하게 한다(Kourilsky, 1995).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인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한다(Wei et al., 2019). 기업가정신 교육은 실행의 개념도 포함할 뿐 아니라 기업가적 인지와 정신 형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Malach & Kristová, 2017). 기업가정신교육은 학생들이 기회를 포착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포함한다(Lackeus, 2014; Santoso et al., 2021).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20년도에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이수자수는 301,589명으로 3년 전인 2017년 대비 30.6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 교육의 경우 주로 단순한 창업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변지유·이장희, 2020), 창업분야에서의 경영교육(Business and Management Education)은 이론과 양적 분석이 과한 반면 질적 요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Santoso et al., 2021). 최근에는 기업가정신 뿐 아니라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한 연구계의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다.

### Ⅲ. 연구모델

#### 3.1. 연구가설

##### 3.1.1. 기업가정신역량과 창업의도 간 관계

기업가적 활동은 창업의도에 있어 결정요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Sondari, 2014). 기업가정신은 성격적 특성뿐만 아니라 동기적 요인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Ang & Hong, 2000), 동기는 기업가정신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Santoso et al., 2021) 학생들의 행동과 미래 태도에도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태도를 전환시키기도 한다(Galloway & Brown 2002).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며(Bandura et al., 2003), 기업가정신교육의 목표는 창업의도가 있는 학생을 식별하고 미래 경력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다(Thursby et al. 2009). 이러한 기업가정신교육은 창업행위 뿐 아니라 자신감 그리고 성취욕구와 같은 개인의 의지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대수 외, 2017). 프랑스, 독일 및 폴란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에서도, 기업가정신교육이 프랑스와 폴란드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Packham et al., 2010),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기업가정신역량이 교육경험만족과 창업의도 간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증되었다(변지유 외, 202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1. 기업가정신역량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2.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기업가정신교육 및 진로관련 연구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는 있으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결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수렴되지 않고 있으며, 기업가정신 관점에서의 광범위한 경력 의미도 여전히 탐구중인 상태이다(Akpoviro et al, 2021). 기업가정신은 행동과 의지를 포함하는 동적인 발생과정(이정호, 2005)으로, 폭넓은 의미의 경력관점에서 창업을 하나의 대안으로 선택하기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한 의도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정경희·성창수, 2016), 기업가정신교육은 자아와 미래 직업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진로탐색 개입요인이다(Akpoviro et al., 2021). 기업가정신의 하위요인 중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기업가정신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의미 있는 요인이며(김대수 외, 2017), 진로준비행동이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창업교육 집단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정경희·성창수, 2016).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 연관성이 있음은 확인되었으나, 변수 간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기업가정신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기업가정신역량은 진로준비행동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3.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 및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직업 선호도와 기업가적 신념은 직업 대안으로서의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받으며(Autio et al., 1997), 동기가 높은 학생 기업가는 역동적이고 모호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예측 할 가능성이 높다(Kacmar et al., 2013). 기업가정신역량은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에 의해 매개되며(Sanna et al., 2021), 태도 변화는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Shapiro & Sokol, 1982). 그리고 위험에 대한 관용과 의사결정 능력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배우고 충분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Pihie, 2009). 기업가정신이나 기업가정신역량은 기업가적의도 및 창업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고(Chen et al, 1998; Pihie, 2009; 변지유 외, 2021), 진로준비행동이나 경력지향성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중범 외, 2020). 또는, 잠재적 창업가의 경력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있어 확고한 동기부여 효과를 일으키고(Schein, 1975; 윤방섭, 2004), 기업가정신이나 기업가정신교육이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다(김대수 외, 2017).

기존 취업 관점에서의 진로라는 개념은 취업과 창업 등 전반 진로개념으로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가정신과 진로 간 연관성을 밝히는데 있어 이러한 개념적 전환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까지는 취업중심 진로나 경력관점에서 창업과의 연관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다소 우세해 왔으나, 기업가 정신 및 기업가정신역량을 이해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진로 분야 등과의 통합된 연구노력도 필요하다(Binks et. al., 2006). 기업가정신역량과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 간 충분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 뿐 아니라 진로준비행동까지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지 실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H3. 창업의도는 진로준비행동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창업의도는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sup>2</sup>의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 3.1.4. 교육수강 전후 다중집단 간 연구결과 차이

교육은 기업가적 역량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Hannon, 2006).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은 직업선택의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가적 동기나 인지적 요인 뿐만 아니라 태도전환,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만들기 위한 능력이나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시킨다(Galloway & Brown, 2002; Shane et al., 2003; 변지유·이장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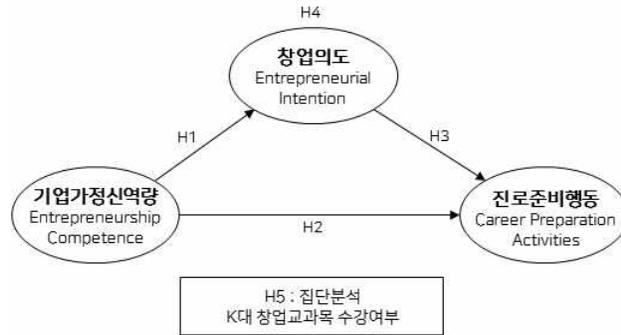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하여서는 성별이나 계열집단 간 교육효과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Packham et al., 2010; 변지유 외, 2021)에 비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수강 전과 후의 영향력 차이를 밝히는 연구(Audet, 2002; 정경희·성창수, 2016)는 희소한 편이다. 주요 선행연구 결과로는 남학생집단(Packham et al., 2010)이나 공학계열(변지유 외, 2021)에서 교육효과가 더 긍정적이거나, 교육 후 창업의 바람직함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인다(Audet, 2002).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경력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창업교육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연구도 있으나, 창업교육 이수집단에서의 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경력의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도 밝혀지고 있다(정경희·성창수, 2016).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수강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H5.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수강집단이 미수강 집단 대비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유의할 것이다.*

## 3.2. 연구모형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Chen et al., 1998; Pihie, 2009; 변지유 외, 2021), 기업가정신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인과관계(Akpoviroro et al., 2021; 김대수 외, 2017)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교육전후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고려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림 1] 연구모형

## IV. 연구방법

### 4.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SPSS와 AMOS 프로그램을 활용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변수 간 관계와 영향력을 살폈고, 교육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집단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가설 및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탐색적요인분석,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확인적요인분석, 구조방정식 경로분석 및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연구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설문조사 대상은 중부권 5개 대학의 재학생 463명이며, 2018년 11월 한달 간 설문조사를 진행해 결측치 등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집단1은 315부,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K대학의 S 정규교과목에서의 수강 전 조사에 응답한 집단2는 55부, 수강 후 설문조사에 참여한 집단3에서의 93부를 연구에 활용한다. 설문조사 참여가 강제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강전과 수강후 설문진행 수는 다소 상이하다. 교과목은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정신역량, 디자인사고기반 비즈니스모델 수립 및 사업계획서작성을 주요 주제로 다루며,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 4.2. 측정도구와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에 활용된 측정지표는 관련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기업가정신역량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모델개발(이철기 외, 2019) 및 기업가정신교과목 개발 결과와(이상곤·변지유, 2020), 변지유·이장희(2020), 변지유 외(2021)의 기업가정

신역량 프레임과 척도를 활용하였다. 기업가정신역량과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기업가정신역량 32개, 창업의도 4개, 진로준비행동 4개 총 4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변수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표 1]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문항수	출처
기업가정신역량	기회발굴역량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발굴하는 역량	4	Morris et al.(2013) Lackeus(2014) Lans et al.(2014) Bacigalupo et al.(2016) Tovar et al.(2020) 김지현(2017) 이혜영·김진수(2018) 변지유·이장희(2020) 변지유 외(2021)
	가치창출역량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창출하는 역량	4	
	자기개발역량	자기신념을 가지고 내적인 성장 및 자아를 실현하는 역량	4	
	기술활용역량	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4	
	자원조달역량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역량	4	
	전략적 관리역량	전략적으로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역량	4	
	네트워킹역량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역량	4	
	경험을 통한 학습역량	경험을 통해 배움을 체화하는 실행역량	4	
창업의도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창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4	Timmons(1994) 홍진기(2015) 채연희(2017) 변지유 외(2021)	
진로준비행동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쌓고 경험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전반 행동	4	Speas(1963) Winer(1992) 김계현(1995) 문승태·박미하(2013)	

### 4.3.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은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 463명이다. 표본의 주요 특성으로는 공학 계열(47.52%)과 3학년(39.53%)의 수가 많았고, 창업선도대학이거나 창업동아리 활동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음에도 진로목표가 취업인 경우(66.31%)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표 2] 표본의 특성 (N=463)

구분	항목	빈도수(비율)	구분	항목	빈도수(비율)
계열	공학	220(47.52%)	진로목표	창업, 프리랜서	121(26.13%)
	인문사회	135(29.16%)		취업	307(66.31%)
	자연	27(5.82%)		기타	35(7.56%)
	예체능	81(17.50%)	창업경진	유	131(28.29%)
학년	1	68(14.69%)	대회경험	무	332(71.71%)
	2	105(22.68%)	표본 구분	집단1(기존표본)	315(68.03%)
	3	183(39.53%)		집단2(수강전)	55(11.88%)
	4	107(23.10%)		집단3(수강후)	93(20.09%)

## V. 연구결과

### 5.1.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기업가정신역량,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 간 영향력과,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그리고 K대 창업교과목 수강전 및 수강후 집단 간 영향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변수 관련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최소화를 위해 기업가정신역량 8개,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 각 4개씩 총 40개의 척도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_Olkin)와 Bartlett 검정결과는 .93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도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공통성은 .4이상의 설명력을 갖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인 7개의 요인이 전체 입력변수의 59.49%를 설명하고 있어, 요인구조를 정의하기에 적절하다(Gorsuch, 1983). 요인적재값은 직교회전(varimax) 회전방식으로 .40 이상 적재된 요인을 척도로 분석하였다. 기업가정신역량(기회·가치창출역량, 자기개발역량, 기술활용역량, 자원조달역량, 전략·네트워킹·경험을통한학습역량), 창업의도,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이 높게 적재되어 연구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요인적재값이 0.4 미만이거나 공통적 성격을 갖지 못하는 가치창출역량4, 자원조달역량3, 경험을통한학습역량4를 제외한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기회·가치창출역량, 자기개발역량, 기술활용역량, 자원조달역량, 전략·네트워킹·경험을통한학습역량,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이 각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도 분석결과도 모든 변수의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값이 .7이상으로 척도의 신뢰성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변수명	문항	요인 적재량	Eigen value	Cronbach's $\alpha$	
기업가정신역량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를 찾을 수 있다.	.488	12.256	.841	.934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574			
	나는 어떠한 주제에 대하여 사고할 때 창의적이거나 융합, 복합, 또는 응용을 해 본다.	.614			
	나는 사회적인 트렌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645			
	나는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682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가치창출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593			
	나는 미래의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다.	.573			
자기개발	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676	2.509	.790	
	나는 비전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뎌 낸다.	.688			

변수명	문항	요인 적재량	Eigen value	Cronbach's α
역량	나는 성공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한다.	.592		
	나는 진로를 준비함에 있어 나에게 적합한 업종이나 아이템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38		
기술 활용용역량	나는 주력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762	2.120	.849
	나는 남들보다 뛰어난 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811		
	나는 신기술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	.657		
	나는 신기술 분야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732		
자원 조달역량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자원(예, 인력, 자금 등)이 무엇인지 잘 아는 편이다.	.631	1.474	.725
	나는 경제와 재무(돈이나 재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752		
	나는 내부자원이 부족할 경우 외부자원을 활용할 줄 안다.	.494		
전략 네트워킹 경험 통한 학습역량	나는 비전에 따른 목표를 수립할 수 있다.	.507	1.387	.873
	나는 목표 설정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582		
	나는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514		
	나는 단기 및 중장기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22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 창출 활동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612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잘 구축하고 있다.	.575		
	나는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578		
	나는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564		
	나는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일시적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	.528		
	나는 경험을 통해 능력이 향상된 적이 있다.	.672		
	나는 나(또는 팀)의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	.576		
창업의도	나는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의 창업을 계획 한다.	.821	1.141	.886
	나는 차별화된 기술과 경험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	.816		
	나는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기 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	.783		
	나는 미래에 반드시 회사를 창업할 것이다.	.813		
진로 준비 행동	나는 나에게 맞는 진로분야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있다.	.730	1.125	.734
	나는 적성과 관련지어 진로에 대해 생각한다.	.720		
	나는 나의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671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창업,취업,진로 등)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595		

## 5.2. 상관관계 및 확인적 요인분석

변수 간 관련성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결과, 기업가정신역량과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계수는 각 .505와 .492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 간 상관계수는 .355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간 상관관계

구 분	평 균	기업가정신역량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
기업가정신역량	3.454	1		
창업의도	3.397	.505**	1	
진로준비행동	3.903	.492**	.355**	1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에서 유의함(양쪽)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ive factor analysis: CFA)에서는 표준화요인부하량(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값이 .5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는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모형 경로계수 및 적합도

구 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t값 (C.R.)	표준화 계수	개념신뢰도 (C.R.)
기업가정신역량→기회발굴·가치창출역량	1			0.805	.925
기업가정신역량→자기개발역량	1.072	0.062	17.274	0.762	
기업가정신역량→기술활용역량	1.009	0.076	13.333	0.612	
기업가정신역량→자원조달역량	1.043	0.072	14.58	0.661	
기업가정신역량→전략·네트워킹·경험을통한학습역량	0.936	0.049	18.983	0.826	.855
창업의도→의도1	1			0.845	
창업의도→의도2	0.96	0.045	21.482	0.85	
창업의도→의도3	0.891	0.048	18.697	0.767	
창업의도→의도4	1.022	0.052	19.624	0.794	.938
진로준비행동→행동1	1			0.638	
진로준비행동→행동2	1.045	0.094	11.062	0.692	
진로준비행동→행동3	0.969	0.103	9.402	0.550	
진로준비행동→행동4	1.274	0.115	11.06	0.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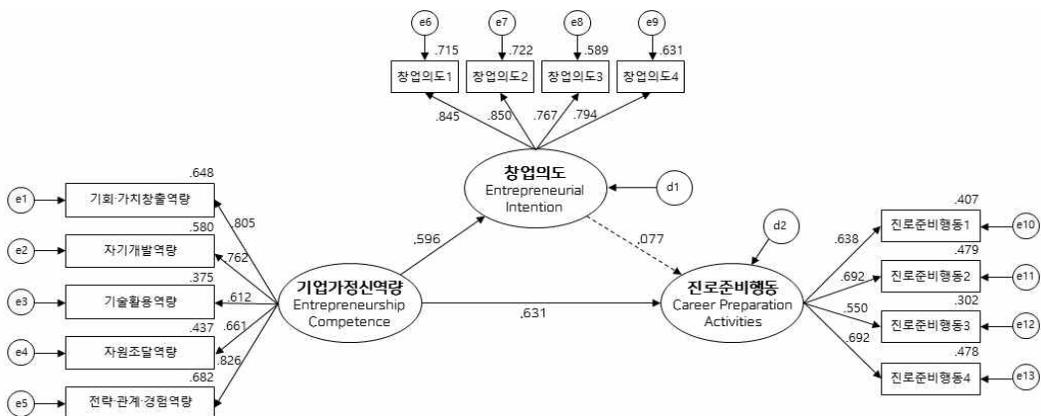
적합도 지수 : GFI .925, RMSEA .074, NFI .924, CFI .944, AGFI .890

또한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며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람다값은 .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R.)는 .7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

### 5.3. 연구모형 분석결과

모형 적합도는 수집된 자료와 연구모델이 부합되는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절대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 구조방정식모델과 변수간 상관을 설정하지 않은 모델 간 비교를 통해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증분적합도지수(incremental fit index), 연구모델의 간명도를 측정하는 간명적합도지수(parsimonious fitindex)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절대적합도지수인 GFI (goodness of fit index: 적합지수)( $\geq .9$ )는 .925, 모형전반 적합도인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leq .08$ )는 .074, 증분적합도지수인 NFI (normed fit index: 표준적합지수)( $\geq .9$ )는 .924, CFI (comparative fit index : 비교적합지수)( $\geq .9$ )값은 .944, 간명적합도지수인 AGFI(adjusted goodness-of-fit-index: 조정적합지수)( $\geq .85$ )는 .890로 전반적으로 연구모형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각 .60과 .63으로 모두 유의수준  $p < 0.05$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창업의도가 진로준비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잠재변수인 기업가정신역량의 관측변수는 기회·가치창출역량(.648), 자기개발역량(.580), 기술활용역량(.375), 자원조달역량(.437), 전략·네트워킹·경험을 통한 학습역량(.682)으로 전략·네트워킹·경험을 통한 학습역량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변수 변화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분석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변수는 전략·네트워킹·경험을 통한 학습역량 > 기회·가치 창출역량 > 자기개발역량 > 자원조달역량 > 기술활용역량 순으로 변화량의 크기를 보인다.

#### 5.4.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 창업의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전체 표본집단의 경우 창업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5. 다중집단분석

##### 5.5.1. 다중집단 구조모형 분석

창업교과목 수강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자 기존집단, 수강전 집단, 수강후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표 6과 같이 Model Comparison에서의 비제약모델과 요인부하량제약모델 간 차이는  $df=20(<31.410)$ ,  $CMIN=18.718$ ,  $p=.540$ 으로 측정동일성에 문제가 없어 다중집단경로분석이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우종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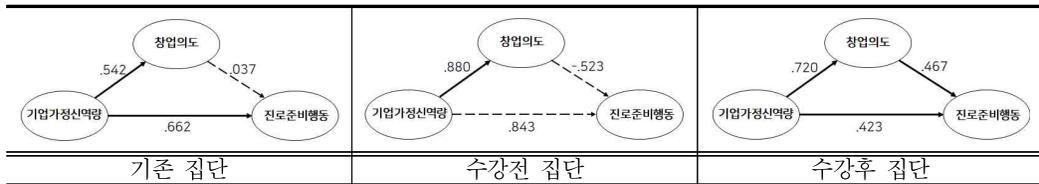
[표 6] 측정동일성 분석결과

분석구분	CMIN /DF	$\chi^2$	df	GFI	CFI	TLI	RM SEA	$\Delta\chi^2$	Sig.
unconstrained	2.139	397.813	186	.880	.926	.907	.050	-	-
measurement weights	2.022	416.531	206	.877	.926	.916	.047	18.718	유의하지 않음
structural covariances	2.109	451.299	214	.870	.917	.909	.049	53.486	유의
measurement residuals	2.018	492.432	244	.860	.913	.917	.047	94.619	유의

##### 5.5.2. 다중집단 경로분석

요인부하량 동일성에 문제가 없어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하였다. 먼저 세 개의 집단별로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집단에서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수강전 집단에서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수강후 집단에서는 모든 path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대학에서 창업교과목을 수강하기 전 집단은 창업선도대학과 창업동아리 중심의 기존 표본집단 대비 기업가정신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차이를 보인다. 창업교과목 수강후 집단을 수강전 집단과 비교한 결과, 외생변수인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 뿐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창업의도가 진로준비행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창업교과목을 수강한 집단을 기존집단과 비교했을 때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창업의도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path는 기존 집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



[그림 3] 집단별 경로분석 결과

집단 간 유의한 경로차이는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에서 확인할 수 있다(우종필, 2016). 기존집단과 수강전 집단 간에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간 수치가 2.141, 기존집단과 수강후 집단간에는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간 수치가 2.530로 절대값 1.965 이상이기 때문에 유의한 경로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수강전 및 수강후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특히 기존 집단과 수강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 기존집단은 .542( $p < .001$ ), 수강전 집단 .880( $p < .001$ ), 수강후 집단에서는 .720( $p < .001$ )으로 수강전 집단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수강전 집단대비 수강후 집단에서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한 이유는 교육을 통해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고, 기술창업 전반과정이 생각했던 것 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업가정신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집단과 창업교과목 수강후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나, 창업교과목 수강전 집단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기존집단은 .662( $p < .001$ ), 수강전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으며, 수강후 집단에서는 .423( $p < .01$ )으로 기존집단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셋째, 창업의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기존집단과 수강전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창업교과목 수강후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기존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진다. 수강후 집단에서의 영향력은 .467( $p < .01$ )이다.

넷째, 창업의도의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 매개효과의 경우, 수강후 집단에서만 유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목에서 기업가정신역량을 통해 다루어진 ‘사회에서의 가치창출 필요성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자기개발’ 등에 대한 학습결과, 역량이 창업의도 뿐 아니라 좀 더 주도적인 진로준비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역량 하위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수강전 집단과 수강후 집단에서의 각 영향력은 기회 및 가치창출역량(.664, .808), 기술활용역량(.238, .525), 자원조달역량(.531, .694), 계획관계경험역량(.701, .833)으로 수강후 집단에서의 영향력이 더 높았고, 기존집단과 비교시 자기개발역량(.767, .792), 자원조달역량(.654, .694)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VI 결론 및 제언

### 6.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의도가 기업가정신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밝힘으로써 진로관점에서 기업가정신역량의 중요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연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K대학에서의 S창업정규교과목 수강이 미치는 영향도 밝힘으로써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역량과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도 실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가정신역량은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창업의도는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 식별이나 기업가적 태도형성, 그리고 미래경력 관련 필요능력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hen et al, 1998; Pihie, 2009; Thursby et al. 2009; Packham et al., 2010). 기업가정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변수는 계획·네트워킹·경험을 통한 학습역량, 기회·가치창출역량, 자기개발역량, 자원조달역량, 기술활용역량 순으로 변화량의 크기를 보였다. 둘째, K대학에서의 S창업정규교과목 수강 전과 후의 변수간 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강 전 집단에서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가진 반면, 수강후 집단에서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창업의도가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교육집단에서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거나 태도를 전환시키고, 기업가적역량을 함양시킨다는 선행연구와도 동일한 맥락을 보인다(Galloway & Brown, 2002; Shane et al., 2003; 정경희·성창수, 2016; 김대수 외, 2017; 변지유·이장희, 2020). 기존집단과 비교하면 수강전 집단은 기업가정신역량 및 창업의도가 진로준비행동과는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않았지만 수강 후에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낮아졌으나, 창업의도가 진로준비행동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를 보인다. 기존집단 및 수강전 집단과 비교했을 때, 5가지 기업가정신역량이 균형있게 갖추어질 경우 수강후 집단에서와 같이 기업가정신역량과 창업의도, 진로준비행동 간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실증하였다. 특히, 수강후 집단은 나머지 집단대비 자원조달역량이 높았는데, 자원조달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창업의도나 진로준비행동 추진력이 촉진되었으며, 자기개발역량이 향상됨으로써 의도가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강력한 동력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강후 집단에서의 기업가정신역량 하위요인은 수강전 집단대비 기회·가치 창출역량, 기술활용역량, 자원조달역량, 계획·네트워킹·경험을통한학습역량의 영향력이 더 높았고, 기존집단 대비 자기개발역량, 자원조달역량의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6.2. 시사점 및 제언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밝히거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거나 창업의도와의 유의한 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비교적 빈번히 이루어져 왔고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음에도 기업가정신의 정의나 구성, 교육 설계상 교육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후 기업가정신역량이나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추가연구가 이어지면서 기업가정신 및 교육이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 가기 시작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이나 기업가정신역량이라는 것이 사회적 개선이나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모두가 갖추어야 할 자기혁신의 바탕이 되는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진로개념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역량 개념을 도입하여 혁신적 기업가양성의 선행요인이 될 창업의도와 주도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행동개념을 포함하는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고, 실제 창업정규교과목 수강 전과 수강 후 상황에서의 변수 간 관계를 실증함으로써 기업가정신역량의 구체적인 영향력과 진로준비행동과의 연관성도 밝혔다.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 뿐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진로활동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취업중심 성향이 강한 대학에서 조차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을 통해 기업가정신역량을 높이고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창업자 발굴에 유의한 선행요인인 창업의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기업가정신역량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 유의한 매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학문적으로는 기업가정신역량을 구체화 하고 진로관점으로 연구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특히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수립시에는 대학 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지원에 있어 기업가정신교육이 더욱 체계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량중심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교육효과 검증과정을 포함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설계시 기업가정신역량에 대한 개념을 도입할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기업가정신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진로 관점에서의 교육설계가 필요하겠다. 또한 교육효과 및 수요 등의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커리큘럼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창업분야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특성과 관련되는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교육분야 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역량이 초기 연구단계라는 배경으로 선행연구를 충분히 제시하기 어려웠고, 중부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지역적인 표본 상 한계를 가진다. 또한 구조방정식에 있어 전체 표본수는 적절하지만, 특정 대학에서의 동일한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분에서는 표본수에서도 제한적이라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일한 교과목에서 수강전과 수강후 영향력을 비교함으로써 기업가정신역량이 기업가육성이나 진로교육에 있어 유의하고 강력한 선행요인이며 하위역량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가진다. 기업가정신역량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연구하여 창업정규교과목을 개발하였고, 2019년 2학기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교과목 수강생이 창업동아리로 가입해 활동하거나 실제 창업활동으로 이어졌으며, 창업이후 고용 및 매출성과도 정보공시자료상 대학별 재학생수를 모수로 한 결과 창업자수 및 매출, 고용성과가 매년 증가하였으며, 2021년도 공시자료에서는 성과항목 모두 전국 상위 5%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K대학 뿐 아니라 전국대학의 전반 창업지원성과도 향상되고 있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더욱 고도화된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연구계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특히 국내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고,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이 기업가정신역량을 높여 나감으로써 한국의 창업1세대가 그러하였듯 혁신적 기업가로 거듭나 일 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경제를 일으켜 나가는 사회적 선순환이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경균(2017),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틀(Framework) 개발”, 「직업교육연구」, 제36권, 제4호, pp. 84-108.

김계현(1995), 상담심리학. 학지사.

김계현(2001), 상담심리학 연구(2): 집단 진로 학업 가족상담, 학지사.

- 김대수, 윤정현, 이동식(2017), “기업가정신이 변화주도행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업교육연구」, 제31권, 제1호, pp. 201-236.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환, 복경수, 박재춘(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0권, 제5호, pp. 15-26.
- 김지현(2017).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성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부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 대학정보공시(2021), 대학알리미, <https://www.academyinfo.go.kr>.
- 문승태, 박미하(2013),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낙관성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pp. 185-203.
- 박종범, 양영석, 김명숙(2020), “액티브 시니어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이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1호, pp. 285-301.
- 배해경, 이우진(2020),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이 기업가적 태도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Proceedings of Conference on Business Venturing, Spring, pp. 95-100.
- 변지유, 이장희(2020),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연구: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EntreComp(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도출”, 「벤처창업연구」, 제15권, 제6호, pp. 189-207.
- 변지유, 윤기선, 이장희(2021), “교육경험만족과 창업의도 간 관계: 기업가정신역량의 매개효과 및 계열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제16권, 제4호, pp. 112-140.
- 세계일보(2003.08), <https://www.segye.com>.
- 우리말샘(2021), 네이버국어사전, <https://www.naver.com>.
- 우종필(2016),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아카데미.
- 윤방섭(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pp. 89-110.
- 이상곤, 변지유(2020), “기업가육성 정규교과목 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이정호(2005), “기업가정신, 조직구조, 조직문화 및 조직성과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이영대, 정윤경, 최동선, 김나라, 장석민, 정영근, 남미숙, 이진남(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철기, 문일영, 이상곤, 안태욱, 변지유(2019),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모델개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센터.
- 이혜영, 김진수(2018), “초기 및 후기 기술창업기업 창업가의 역량모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제13권, 제4호, pp. 99-116.
- 정경희, 성장수(2016), “대학 창업교육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경력준비행동 및 기업가적 경력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제11권, 제4호, pp. 49-57.

기업가정신역량이 창업의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성희, 성은모(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pp. 67-90.

채연희(2017), “대학생의 기업가적역량이 취업가능성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실패인식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제32권, 제4호, pp. 165-183.

홍진기(2015), “창업자의 개인특성, 사회적자본, 창업정책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정신과 가치지향성을 중심으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국외문헌>

Acs, Z., Audretsch, D. B. and Strom, R.(2009), *Entrepreneurship, Growth, and Public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K.

Ahmad, Z. S.(2013), "The need for inclus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Malaysia lower and higher learning institutions", *Education+Training*, Vol.55, No.2, pp. 191-203.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 179-211.

Akpoviroro, K. S., Adenuga, O. A. O. and Amos, A. O.(2021),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udents' Career Reflections,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tudents' Career Reflections",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Vol.24, pp. 1-15.

Ang, S. H. and Hong, D. G.(2000), "Entrepreneurial spirit among east Asian Chinese", *Thunderbird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Vol.42, No.3, pp. 285 - 309.

Audet, J.(200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Vol.10, No.1 et 2, pp. 3-16.

Autio, E., Keeley, R. H., Klofsten, M. and Ulfstedt, T.(1997), *Entrepreneurial intent amongstudents: testing an intent model in Asia, Scandinavia and USA*,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Babson Conference Waltham, MA: P&R Publication Inc.

Bacigalupo, M., Compylis, P., Punie, Y. and Brande, G.(2016), *Entrecomp: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works*,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Baldassarri, S. and Saavala, T.(2006), "Entrepreneurship - educating the next generation of entrepreneurs", *Enterprise Europe*, Vol.22, pp. 16-20.

Bandura, A., Caprara, G. V., Barbaranelli, C., Gerbino, M., and Pastorelli, C.(2003), "Role of affective self-regulatory efficacy in diverse sphere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Child Dev.* Vol.74, pp. 769 - 782.

Bartram, T.(2005), “Small firms, big ideas: The adopti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Australian small firms”,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43, No.1, pp. 137-154.

Binks, M., Starley, K. and Mahon, C. L.(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 businessschool", *Technology analysis and strategic management*. Vol.18, No.1, pp. 1-18.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3, No.3, pp. 442-453.
- Carter, N. M., Gartner, W. B., Shaver, K. G. and Gatewood, E. J.(2003), "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8, No.1, pp. 13-39.
- Chen, C. C., Greene, P. G. and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3, No.4, pp. 295-316.
- Crant, J. M.(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34, No.3, pp. 42-49.
- Dempsey, I., Gore, A. and Fal, M.(2009), "The Entrepreneurial Dialogues: State of Entrepreneurship in South Africa", *Conference organized by Endeavor South Africa*, Cape Town, 19 November.
- Doan, W., Jeff, V. and Ehrhardt, K.(2011), "An organizing framework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s research: an integration and extension of dominant intent based models using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USA: Small Business Journal*, Vol.12, pp. 417-440.
- Estrin, S., Mickiewicz, T. and Stephan, U.(2016), "Human capital in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e*, Vol.31, pp. 449 - 467.
- Galloway, L. and Brown, W.(2002),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university: a driver in the creation of high growth firms?", *Education and Training*. Vol.44, No.8/9, pp. 398-405.
- Gorsuch, R. L.(1983), *Factor analysis(2th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Hannon, P.(2006), "Teaching pigeons to dance: sense and meaning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Education and Training*, Vol.48 No.5, pp. 296-308.
- Ibrahim, W. N. A., Bakar, A. R., Asimiran, S., Mohamed, S. and Zakaria, N. S.(2015),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udents i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TVET) in Malaysia",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Vol.8, No.12, pp. 141-156.
- Jantunen, A., Puumalainen, K., Saarenketo, S. and Kyläheiko, K.(2005), "Entrepreneurial Orientation, Dynamic Capabilities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Vol.3, No.3, pp. 223-243.
- Kacmar, K. M., Andrews, M. C. and Harris, K. J.(2013), "Ethical leadership and subordinate outcomes: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politics and the moderating role of political skill", *Journal of Business Ethics*, Vol.115, No.1, pp. 33 - 44.
- Kourilsky, M.(1995), *Entrepreneur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Kansas: The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 Lackeus, M.(2014), "An Emotion Based Approach to Assess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Vol.12, No.3, pp. 374-396.

- Lans, T., Blok, V. and Wesselink, R.(2014), "Learning Apart & Together: Towards an Integrated Competence Framework for Sustainable Entrepreneurship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Vol.62, pp. 37-47.
- Lilleväli, U. and Täks, M.(2017), "Competence Models as a Tool for Conceptualizing the Systematic Proc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Vol. 2017, No. 1, pp. 1-16.
- Liñán, F. and Rodríguez, J. C.(2004), "Entrepreneurial attitudes of Andalusian university students", *44th ERSА Conference, Porto (Portugal)*, pp. 25-29.
- Malach, J. and Kristová, K.(2017), "The impact of school education and family environment on pupils' entrepreneurial spirit and attitude to entrepreneurship", *The New Educational Review*, Vol.49, No.3, pp. 101-114.
- Man, Yan, T. W., Lau, T. and Chan, K. F.(2002),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7, pp. 123-42.
- Miller, D.(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Vol.29, No.7, pp. 770-791.
- Morris, M. H., Webb, J. W., Singhal, S. and Fu, J.(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51, No.3, pp. 352-369.
- Noppel, A.(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Competence in Engineering Educators and Engineering Pedagogy Competences", *Research in Economics and Business*, Vol.10, No.1, pp. 55-73.
- Packham, G., Jones, P., Miller, C., Pickemell, D. and Thomas, B.(2010),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comparative analysis", *Education and Training*, Vol.52, No.8/9, pp. 568-586.
- Peltonen K.(2015), "How can teachers' entrepreneurial competences be developed?", A collaborative learning perspective. *Education + Training*, Vol.57, No.5, pp. 492 - 511.
- Pihie, Z. A. L.(2009),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choice: An analysi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9, No.2, pp. 338-349.
- Sanchez, J. C.(2013), "The impact of 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51, No.3, pp. 447-465.
- Sanna, J., Viljamaa, A. and Varamäki, E.(2021), "Understanding Business Takeover Intentions—The Role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Entrepreneurship Competence", *Administrative Sciences*, Vol.11, No.3, pp. 1-17.

- Santoso, R. T. P. B., Junaedi, W. R., Priyanto, S. H. and Santoso, D. S. S.(2021), "Creating a startup at a University by using Shane's theory and the entrepreneurial learning model: a narrative method",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Vol.10, No.1, pp. 1-25.
- Schein, E. H.(1975), "How Career Anchors Hold Executives to Their Career Paths", *Personnel*, Vol.52, No.3, pp. 11-24.
- Schumpeter, J. A.(1965), *Economic theory and entrepreneurial history*", in Aitken, H.G. (Ed.), *Explorations in Enterpris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 Shane, S., Locke, E. A. and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13, No.2, pp. 257-279.
- Shapiro, A. and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In C. A. Kent, D. L. Sexton & K. H. Vesper (Eds.)",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pp. 72-90.
- Sondari, M. C.(2014). "Is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ally Needed? : Examining the Antecedent of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115, pp. 44 - 53.
- Speas, C. E.(1963),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Thursby, M. C., Anne W. F. and Thursby, J.(2009), "An integrated approach to educating professionals for careers in innovation",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Vol.8, pp. 389 - 406.
- Timmons, J. A.(1994), "New Venture Creation :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Irwin McGraw-Hill, Illinois, Fourth Edition*, Vol.6, No.1, pp. 5-20.
- Tomikoski, E. and Maalaoui, A.(2019), "Critical reflections -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 interview with Icek Ajzen with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research", *International Small Business Journal*, Vol.17, No.9, pp. 1-26.
- Tovar, E., Tabuenca, B. and Piedra, N.(2020), "EntreCom4ALL MODEL to sustain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needs", *2020 IEEE Global Engineering Education Conference (EDUCON), Porto: IEEE*.
- Vesper, K. H.(1990), *New Venture Strategie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Wei, X., Liu, X. and Sha, J.(2019), "How Does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fluence the Students' Innovation? Testing on the Multiple Mediation Model", *The Psychology and Education of Entrepreneurial Development*, Vol.10, pp. 1-10.
- Wesselink, R., S. and Wals, A. E.(2011), "Development a coompetence profiles for educators in environmental education prganisations in the Netherlands",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Vol.17, No.1, pp. 69-90.
- Winer, J. L.(1992), "The early history of the Career Decision Scal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40, No.4, pp. 369-375.

#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Focusing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 education

Jhi-Yoo Bian\* · Il-Han Lee\*\* · · Jang-Hee Lee\*\*\*

## Abstract

In Europe, attention is already focused on entrepreneurship competency, which is the basis for social value creation and self-innovation. In Korea, attempts are needed to expand the horizon of research and apply entrepreneurship competency to education from a career perspective. This study demonstrated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in universit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hanges in influence between variables before and after taking regular entrepreneurship courses. As a result of the study, entrepreneurship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ut entrepreneurial inten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tart-up subject class group, entrepreneurship compet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the difference in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entrepreneurship compet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verifi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pecifically demonstrated the influence of sub-factors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by expanding into career concepts, and expects to spread a virtuous cycle of becoming an innovative entrepreneur, creating jobs, and boosting the economy by strengthening entrepreneurship competence.

**Keywords :** *Entrepreneurship Competence, Entrepreneurial Inten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Education Effect, Multi-Group Analysis*

**Research Classification of JTKE I :** *Type II-② (Import & application of new theory, Relevance)*

**Research Classification of JTKE II :** *Startup policy, Individual-level research*

---

\* Professor dedicated to start-ups, Koreatech(First author, E-mail: designkorea1@naver.com)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Co-author, E-mail: lih2114@cau.ac.kr)

\*\*\* Professor, Koreatech(Corresponding author, E-mail: janghlee@koreatech.ac.kr)